

중앙일보



▲ 9월 14일 중앙일보 경제 5면

국회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에서는 5대 미래전략 산업과 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5대 과제가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증가'가 포함된 과제가 요약된 특집기사

머니투데이



▲ 9월 18일 머니투데이 2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리딩벤처 CEO간의 만남을 통해 현 경제상황과 벤처산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벤처산업의 중요성을 논의한 간담회 주요내용을 보도한 기사

중소·벤처기업 회생 위한 특수목적펀드 4개 결성

중소기업청은 연말까지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 등 4개의 특수목적펀드와 3개의 일반창업투자조합을 결성키로 하고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는 코웰창투가 운용을 맡아 3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유한회사형 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결성돼 한국에프엔피(가칭)가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펀드, 200억~3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 등의 특수목적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또 엠벤처투자가 170억원 규모의 창투자조합을, 아이벤처투자와 센츄리온이 각각 100억원 규모의 창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하게 된다.

부실자산인수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코웰창투 정한식 대표는 "이 펀드로 1000억원 가량의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불능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해외규격 전자도서관 운영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규격 열람 전자도서관(www.standard.or.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 열람 전자도서관은 152개국의 해외규격 33만건을 데이터베이스(DBA)로 구축, 각 규격별 해외인증 획득 절차 및 기술규격 해설서 등 인증 획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전자도서관에서는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 초록과 인증획득 절차 및 각종 해설서를 검색해볼 수 있다. 또한 검색엔진과 키워드를 이용해 국제규격분류체계(ICS) 기준으로 3단계 검색이 가능하다.

해외규격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홈페이지에 접속, 필요한 규격 원문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출력해 우편 등으로 보내준다. 중기청으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산업기술시험원(KTL)을 방문해 규격 원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

기술신보, 기술 중소·벤처기업 투자 강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이 기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5억원씩 연내 30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기술신보 박봉수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투자를 늘려 2010년에는 투자 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대상 기업은 2~3년 내에 기업공개(IPO)가 가능한 성장·성숙단계 기업 중 ▲기술평가가 보증승인을 받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포함한 미래 핵심 산업 기업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영위기업 등이다. 또 투자는 단독투자와 공동투자로 구분해 운영될 계획이다.

기술신보는 직접 투자에 맞춰 앞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보증과 투자를 혼합해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보는 ▲창업단계 기업엔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보증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엔 보증과 투자중심 지원 ▲성숙단계 기업엔 투자중심으로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술신보가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해 정부에 출연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 출연예산은 기존의 40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